

“쌍둥이 의지 꺾어라” 라우어-네일 출격

KIA, LG와 주말 잠실 빅매치 ‘3전 4기’ 10승 네일 연승 도전 두 번째 등판 라우어 ‘적응 끝’



KIA가 잠실에서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KIA 타이거즈가 16일부터 LG 트윈스를 상대로 원정 3연전에 나선다.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KIA와 ‘다펜딩 챔피언’의 맞대결이자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들어 올린 LG는 올 시즌에도 삼성라이온즈와 2위 싸움을 하면서 KIA를 추격하고 있는 난적이다.

최근 타격 부진으로 고전했던 KIA 입장에서는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야 하는 중요한 맞대결이자, 마운드 경쟁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김도현을 시작으로 에릭 라우어-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내세워 주말 빅매치를 벌인다.

이번 맞대결을 위한 ‘맞춤형 로테이션’이다. KIA는 새로 영입한 에릭 라우어를 지난 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투입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등판 상대는 LG가 됐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뒤늦게 팀에 합류한 라우어가 2위 싸움을 하는 강팀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로테이션이 준비됐다.

그리고 김도현의 선발 등판을 조절하면서 네일이



라우어

LG를 상대하게 됐다.

김도현 지난 6일 KT와의 홈경기를 통해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원래 로테이션으로는 11일 삼성전 선발까지 두 차례 등판에 나서야 했지만 이날 라우어가 투입됐고, 김도현은 대신 불펜으로 나와 2.2이닝을 소화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다.

이어 네일이 1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 선발로 나오면서 18일 LG전까지 치르게 됐다.

KIA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메이저리그 36승에 빛나는 라우어를 영입하는 등 네일과 라우어



네일

로 ‘외국인 원투 펀치’를 새로 구축했다.

리그 1위 질주는 물론 가을잔치에서도 두 선수의 역할은 중요하다.

네일은 이번 LG전을 통해 연승을 노린다.

네일은 앞선 키움과의 경기에서 5이닝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네일은 팀에서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오른 투수가 됐다.

KIA에서 4년 만에 나온 외국인 10승 투수다. 2020년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봉이 나란히 11승을 기록했지만 KIA는 이후 외국인 투수 고만을 이어왔다.

네일은 지난 7월 20일 한화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그리고 ‘3전 4기’ 끝에 10승을 기록했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던 라우어는 시차 적응을 끝내고 1위 질주 전면에 서야 한다.

라우어는 삼성을 상대했던 KBO 첫 무대에서는 3.1이닝(75구) 7피안타 2볼넷 3탈삼진 4실점의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강민호와 박병호에게 홈런을 허용하는 등 KBO 타자들의 매서운 타격을 경험했다.

지난 5일 입국했던 만큼 시차에 따른 컨디션 난

조에 공인구, 다른 리그에 대한 적응도 필요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타선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키움전에서 아홉수에 막혀있던 김도영이 시원한 스윙으로 다승 공동 1위(11승)를 기록하고 있던 헤이스를 상대로 최연소 ‘30-30’을 만들어 냈고, 김태근도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KIA가 외국인 원투펀치를 앞세워 1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연승 광주FC “1위 강원 잡는다”

18일 K리그1 27R 원정경기...4경기 연속 무실점 도전



상승세를 탄 광주FC가 1위 강원FC를 상대로 시즌 첫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강원을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시즌 첫 4연승과 4경기 연속 무실점에 도전하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9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아사니의 골 1-0 승리를 거두고 3연승에 성공했다. 앞선 대구FC, 수원FC와의 대결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광주의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이기도 하다.

‘1무 11패’에 그쳤던 전북원정 무승 징크스까지 깬 광주는 1위 강원 사냥에 나선다.

수문장 김경민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3경기 연속 실점 없이 그라운드를 지키고 있다. 부상에서 돌아온 변준수를 필두로 허율, 이상기, 김진호 등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광주의 수비가 탄탄해졌다.

여기에 앞선 전북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쉬어갔던 ‘살림꾼’ 정호연이 연승에 힘을 보탠다. 부상에서 돌아온 변준수를 필두로 허율, 이상기, 김진호 등 주전 선수들의 수비 조지력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다.

앞선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이강현과 이희균의 활약까지 더해 광주가 탄탄한 중원을 구축했다.

시즌 첫 골을 장식하면서 팀의 해결사로 다시 자리 잡은 아사니와 함께 가브리엘, 베카 등 ‘외국인 공격수 3인방’도 든든하다. 신장무와 이근희도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광주의 첫 ‘준프로 계약 선수’인 김윤호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실리 축구로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광주 이희호 감독의 ‘강원 화력 저지’ 전략이 관심사다.

강원은 이상현과 ‘초신성’ 양민혁 듀오를 앞세워 화려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풀백 황문기의 빠르고 저돌적인 돌파까지 더해 강원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가장 많은 48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설욕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7월 7일 21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정한민의 골과 김진호의 자책골로 0-2로 패하며 강원전 5경기 연속 무패를 마감했다.

갈 길 바쁜 광주의 로테이션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강원 원정 이후 21일에는 울산HD를 상대로 홈에서 코리아컵 4강을 치른다. 25일에는 울산과 안방에서 다시 리그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전력 배치가 중요하다.

광주는 12승 1무 13패(승점 37점)의 전적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6위 FC서울(11승 6무 9패·승점 39)와는 승점 2점 차다. 서울과 치열한 파이널A 경쟁 중인 광주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시즌 4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니, 시즌 첫 26R ‘베스트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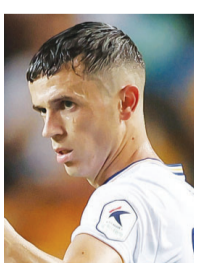
시즌 첫 골로 광주FC의 3연승을 이끈 아사니(사진)가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1 2024 26라운드 베스트11 명단에 광주FC의 아사니가 시즌 처음 이름을 올렸다.

아사니는 지난 9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24분 가브리엘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광주는 이 골을 지키고 1-0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또 광주는 아사니의 결승골로 2011시즌부터 계속된 ‘전주성 징크스’에서도 탈출했다. 광주는 지난 4월 원정까지 전북홈에서 치른 12경기에서 1무 11패,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사니는 시즌 4번째 출장이자 첫 선발 출장 경기에서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광주 순위 싸움의 새로운 핵으로 떠올랐다.



전반 추가시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이상현은 후반 19분에는 오른발 발리슛으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날 승리로 강원은 김천과 자리를 바꾸고 1위로 올라섰다.

이상현과 함께 강원의 승리를 합작한 이기혁, 황문기, 강투지가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은 베스트11에도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음바페(가운데)가 15일(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4 UEFA 슈퍼컵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바페 시대 왔다’ 슈퍼컵 데뷔골·데뷔우승

레알, UEFA 슈퍼컵서 아탈란타 2-0 꺾고 6번째 우승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새 시즌을 앞두고 합류한 킬리안 음바페의 데뷔골이 터진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4 UEFA 슈퍼컵에서 아탈란타(이탈리아)를 2-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UEFA 슈퍼컵은 그해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6월 열린 2023-2024시즌 UCL 결승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꺾고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15회로 늘린 레알 마드리드는 슈퍼컵에서도 6번째 우승으로 역대 최다 1위로 올라섰다.

이전까지는 바르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과 나란히 5회로 공동 1위였으나 2022년 이후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레알 마드리드가 최고 나갔다.

특히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맹활약하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프랑스의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는 새 팀에서 첫 경기부터 골 맛을 보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우승을 차지한 아탈란타는 첫 슈퍼컵에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음바페가 선발 공격수로 출격한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호드리구가 때린 왼발 슈트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전

반엔 아탈란타와 득점 없이 맞섰다. 후반 14분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선제 결승 골이 레알 마드리드에 리드를 안겼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절묘한 개인기로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망블 크로스를 보내자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골대 앞에서 발을 갖다 대 골문을 열었다.

이어 후반 24분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골로 쐐기를 박았다.

호드리구가 상대 선수에게서 불을 빼앗아 시작된 역습에서 비니시우스를 거쳐 주드 벨링엄에게 공이 연결됐고, 벨링엄이 보낸 패스를 음바페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음바페는 후반 38분까지 소화한 뒤 브라힘 디아스로 교체됐다. /연합뉴스